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어휘 고찰

- 체언과 용언을 중심으로 -

이상훈*

|| 차례 ||

- I. 서론
- II. 개별 어휘 고찰
- III.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어휘들 중에서 이 책에서만 볼 수 있거나 중세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 있더라도 용례가 많지 않고 관련된 어휘를 가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의미, 형태 분석 및 예문 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체언과 용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체언으로는 ‘가개(幕)’, ‘軍마기(防禦)’, ‘덩(興)’, ‘바오달(營)’, ‘쓸에질(灑掃)’, ‘음담(食)’, 용언으로는 ‘누음흐-(懈)’, ‘몹-(哀哀)’, ‘미야흐-(不念)’, ‘호즈못흐-(假寐)’ 등을 살펴보았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이 책의 어휘에 대해 이본들 간의 통시적인 변화 및 그 차이를 통해 특징을 살펴본 연구 성과는 없었다. 이 글에서 시도하는 이러한 작업은 시간적 간격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이 책에 쓰인 어휘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유용할 것이고 나아가서 국어의 어휘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강의전담객원교수

주제어 :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언해본, 삼강행실도 어휘, 가개, 군마기, 바오달

1. 서론

이 글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1490)에¹⁾ 쓰인 체언과 용언들 중에서 이 책에서만 볼 수 있거나 중세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 있더라도 용례가 많지 않고 관련된 어휘를 가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의미와 형태 분석, 예문 등을 검토할 것이다.²⁾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일반적으로 초간본이 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종대 판본, 선조대 판본, 영조대 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성종대 판본의 어휘를 후대본인 선조대 판본(1579)과 영조대 판본(1726) 그리고 『오륜행실도』(1797)의 어휘와 비교하면서 어휘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³⁾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어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고,⁴⁾ 이 책의 어휘에 대한 연구도

1)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간행 연대를 148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1481년의 기록은 기존에 있던 책을 다시 반사하라는 뜻이고, 1489년에 효자, 충신, 열녀의 수를 각각 35명으로 산정하고 1490년(성종 21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유범 2006, 이상훈 2018).

2) 이상훈(2018)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어휘를 살펴보았는데 이 글은 이상훈(2018)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휘들을 대상으로 논의할 것이다.

3) 이 글에서 연구를 위해 활용한 책은 다음과 같다. 성종대 판본은 현전본 중에 초간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본(15113e.2), 선조대 판본은 초간본인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 소장본(A00-5994), 영조대 판본은 1726년의 간기가 있는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본(22.10), 『오륜행실도』는 초간본 계통의 판본인 규장각본(가람 古170-Y51o)을 활용하였다.

일부 이루어졌다.⁵⁾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에는 선조대 판본, 영조대 판본, 『오륜행실도』까지 포함하여 異本들 간의 통시적인 변화 및 그 차이를 연구한 성과는 이상훈(2018)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⁶⁾ 이 글에서 시도하는 이러한 작업은 시간적 간격에 따른 언어의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책에 쓰인 어휘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어휘사 연구 및 15세기 중세국어를 정밀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어휘는 체언으로는 ‘가개(幕)’, ‘軍마기(防禦)’, ‘덩(興)’, ‘바오달(營)’, ‘뜰에질(灑掃)’, ‘음담(食)’, 용언으로는 ‘누웁흐-(懈)’, ‘몹-(哀哀)’, ‘미야흐-(不念)’, ‘호즈못흐-(假寐)’ 등이다.

II. 개별 어휘 고찰

1. 체언류

1) ‘가개’

(1) ㄱ. 廬于外 … 父怒又逐之 乃廬于里門 晨昏不廢 <효7a>

ㄴ. 門 밖기 가개 짓고 이서 … 아버지 怒흐야 쏘 내조춘대 믇슬히 가개

4) 미술사 분야의 연구 성과는 최정란(2009), 사상 및 철학 분야는 윤미옥(2016), 교육학 분야는 이규범(2018), 서지학 및 국어학의 연구 성과는 이상훈(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기왕의 여러 논의들 중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들을 범주별로 분석한 김유범(2007, 2008, 2015)의 일련의 논의들은 이 책의 어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 참고가 된다.

6) 이영희(2011)에서는 『삼강행실도』(성종판),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를 대상으로 어휘의 통시적인 변화 및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 짓고 이서 아춤 나조히 오더니 <성종판>⁷⁾
 ㄷ. 문 बाट 가개 짓고 이서 … 아비 노ᄃ야 쏘 내조춘대 막솔히 가개
 짓고 이서 아춤 나조히 오더니 <선조판>
 ㄹ. 문 बाट 막을 의지ᄃ고 이서 … 아비 노ᄃ야 쏘 구툽ᄃ거늘 니문
बाट 막을 의지ᄃ고 이서 아춤 낯으로 들어와 <영조판>
 ㄱ. 집 बाट 막을 의지ᄃ고 이서 … 아비 노ᄃ여 쏘 구죽ᄃ거늘 니문에
막을 의지ᄃ고 신흔 [부모기 도석으로 뵈는 네라]을 폐티 아니ᄃ여
 <오륜11b>

(1ㄴ)은 ‘가개’가 쓰인 예이다. 한문 원문의 ‘廬’에 대응하고 있으며 후대 본에서는 ‘막(幕)’으로 교체되었다. (1ㄴ)은 (아버지가 후처와 결혼하여 설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므로 매로 때리니) “문 밖에 가개(급하게 임시로 만든 거처)를 짓고 있으면서 … 또 내쫓으니 마을에 가개를 짓고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오더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가개’는 “급하게 임시로 만든 집, 허름하게 대강 지은 집” 정도의 의미로 (1ㄹ, ㄱ)과 같은 “막(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개’는 (1ㄴ, ㄷ)의 예를 제외하면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16세기 문헌인 『변역노걸대』와 『훈몽자회』에서 각각 한 예씩만 보인다. 근대국어 문헌까지 확장해서 살펴보아도 쓰인 예가 많지 않은데, 근대국어 문헌에서는 노걸대류 異本들의 예를 모두 포함하여 총 9회만 보인다.

- (2) ㄱ. 나그네들 ᄃ야 그저 이 가개 아래 안자서 밥 먹게 ᄃ져 (敎客人們只
 這棚底下坐的喫飯) <籲老上40b>

ㄱ’. 나그네들 ᄃ여 그저 이 가개 아래 안자서 밥 먹게 ᄃ자 <老乞上

7) 앞으로 이 글에서는 <성종판>, <선조판>, <영조판>, <오륜> 등과 같은 약호를 사용하여 예문을 제시할 것이다. <성종판>은 대영도서관본, <선조판>은 동경대본, <영조판>은 버클리대본, <오륜>은 『오륜행실도』를 뜻하는 것이다.

36b>

ㄱ 〃. 나그닉들로 ㅎ여 이피서 이 가개 아릭 안자 밥 먹게 ㅎ라 (敎客
人們就在這棚子底下坐着吃飯) <老乞新釋1:51a>

ㄱ 〃. 나그닉들로 ㅎ여 곳 이 가개 아릭서 안자 밥을 먹게 ㅎ라 <老乞
重上37a>

ㄴ. 棚 가개 붕 <訓蒙中3b>

(3) ㄱ. ㄷ니ㅎ기는 서늘흔 가개 아래 ㅁ여 머기며 (調理는 拴喂涼棚之下 ㅎ
며) <馬經下63b>

ㄴ. 涼棚 가개 <譯語上17a>

ㄷ. 薔薇 가즈ㅅ와 木香 가개 뒤흘 도라 디나면 예 곳이 花園이라 (轉
過薔薇架邊木香棚後 這裡便是花園) <伍倫1:31b>

(2), (3)은 중세와 근대국어 문헌에 ‘가개’가 쓰인 예이다. 이들은 한문
(또는 백화문) 원문의 ‘棚, 涼棚’에 대응하고 있다. ‘가개’는 (2ㄱ 〃)을 끝
으로 더 이상 문증되지 않는데 (2ㄱ 〃)이 앞선 판본의 영향을 받은 후
대본임을 감안하면 18세기 말 이전 또는 그 무렵에 소멸한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근대 및 개화기국어 문헌에는 ‘가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형
으로 ‘가가’가 보인다.

(4) ㄱ. 부방 삼방은 가가를 짓고 개ㅁ족을 더퍼시니 <을병연행록1:32a>

ㄴ. 길 ㅁ온디 또흔 당막과 가가를 지어 온갓 물화를 버리고 <을병연
행록4:66b>

ㄷ. 棚子 가가 <譯語補12b>, <西部方言19a>

ㄹ. 가가 붕 棚 <倭類上32a>

(5) ㄱ. 길가에 즈기 집이 잇고 집 압희 가가를 내서 지은 사름들은 가가를
헐니고 <독립신문(1896)1:94호>

- ㄴ. 일본 사람 가가 가운데 청인놈이 가가를 일본 사람 가가보다 내서
짓기로 한성부에서 금한다더라 <독립신문1(1896):106호>
- ㄷ. 우리 교우뿐 아니라 저외인들도 이 가가에서 히마다 서책을 사보
고 진보되는 사람이 몇천명씩 되었을 터이오 ... 지금 그 가가를 다
시 벽돌집으로 지으라고 경영하는 중이라 <신학월보(1908)2:360>

(4), (5)는 근대 및 개화기국어 문헌에 ‘가가’가 쓰인 예이다. ‘가가’는 한자어 ‘假家’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현대국어에도 남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가’에 대해 “임시로 지은 집”, “‘가게’의 원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4)의 ‘가가’는 앞서 살펴본 ‘가게’와 같은 “임시로 지은 집”의 의미이고, (5)의 ‘가가’는 오늘날의 ‘가게’ 즉 “점포”의 의미이다.⁸⁾

2) ‘軍마기’

- (6) ㄱ. 其夫當戍 且行 屬曰 <효5a>
- ㄴ. 그 남지니 防禦 薑 저귀 닐오되 [防禦는 軍마기라] <성종판>
 - ㄷ. 그 남지니 군마기 갈 저귀 닐오되 <선조판>
 - ㄹ. 그 지아비 슈자리 갈식 닐오되 <영조판>
 - ㅁ. 그 지아비 슈자리를 당하여 장춧 힝홀식 당부하여 곶오되 <오륜7a>

8)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에서는 15세기의 ‘가게’가 한자어 ‘가가(假家)’에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게’는 15세기부터 문증되는 반면에 ‘가가’는 18세기부터 문증된다. 둘 사이의 간극이 크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다. 한편 현대국어의 ‘가게’는 문세영이 편찬한 『조선어사전』(1938)에 가서야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날의 ‘가게’는 15세기의 ‘가게’에서 직접 기원한 것이 아니고, 18세기부터 보이는 ‘가가(假家)’에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통합한 ‘가게’가 후대에 만들어졌고 이 ‘가게’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6ㄴ)의 ‘防禦’는 한문 원문의 ‘戍’에 대응하는 것으로 협주에서 ‘軍마기’로 풀이하였다. ‘軍마기’는 ‘軍’과 ‘마기(←막+--이(명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군(인)이 막는 일” 즉 “병역, 군대” 정도로 의역할 수 있다. (6ㄴ)의 ‘防禦’는 후대본인 (1ㄷ~ㄹ)에서는 ‘군마기, 슈자리’로 교체되었다.⁹⁾ ‘슈자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국경을 지키던 일 또는 그런 병사.”로 풀이하고 있는 ‘수자리’의 소급형이다.

‘軍마기/군마기’는 이 책에서만 보이지만, ‘마기’는 여러 문헌에서 그 쓰임을 볼 수 있다.

(7) ㄱ. 밑마기(包糞) <籲老下30a>

ㄴ. 두 녀 가르 따 들마기 드론 간애 (又有紵絲剛叉帽兒) <籲老下52a>

ㄷ. 紐 수들마기 뉴 糸口 앞들마기 구 <訓蒙中12a>

(8) ㄱ. 늙은 견막이 낚고 <계축상46a>

ㄴ. 刀揀子 칼마기 <譯語下17a>

ㄷ. 匱隔 간마기 <同文下54b>

ㄹ. 寬博 두루마기 <광제물보衣服2b>

ㅁ. 깃두루막이 (羽周衣) <한불176>

(7), (8)은 중세와 근대국어 시기에 ‘마기’가 쓰인 예이다. (7ㄱ)의 ‘밑마기’는 ‘包糞’에 대응하는 것으로 ‘밑(←밀)’에 ‘마기’가 결합한 것이다.¹⁰⁾ 고어사전에서는 “밀치, 똥받기”로 풀이하였다.¹¹⁾ (7ㄴ, ㄷ)의 ‘들마기’는

9) 이 책(성종판)에는 (6ㄴ) 외에도 한자어 ‘防禦’가 두 번 더 보이는데, 이들 모두 후대본에서는 ‘군마기’와 ‘슈자리’로 교체되었다.

10) ‘包糞’은 『역어유해』에서는 ‘밀치’에 대응하고 있다. ‘包糞 밀치’ <譯語下19b>.

11) ‘밀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말이나 당나귀의 안장이나 소의 길마에 걸고

‘들’과 ‘마기’가 결합한 것인데 ‘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고어사전에 서는 ‘들마기, 수들마기, 암들마기’를 “단추¹²⁾, 수단추, 암단추”로 풀이하고 있다.¹³⁾ (8ㄱ, ㄴ)의 ‘견막이’, ‘칼마기’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결마기(여자가 예복으로 입던 저고리의 하나),¹⁴⁾ ‘칼마기’(칼자루의 마구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8ㄷ)의 ‘간마기’는 ‘간(>칸)’과 ‘마기’가 결합한 것이다. (8ㄹ)의 ‘두루막이’는 부사 ‘두루’와 ‘막이’가 통합한 것으로 ‘윗마기, 아랫마기’와 달리 위와 아래를 두루 막아주는 것이므로 외출용 옷을 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덩’

- (9) ㄱ. 董卓 爲相國 承其名 聘以輶輜百乘馬二十匹 <열9a>
 ㄴ. 相國 董卓이 덩 一百과 물 슌 匹로 聘하니 <성종판>
 ㄷ. 직상 동탁이 덩 일백과 물 슌 필로 오라 흘식 <선조판>
 ㄹ. 승상 동탁이 그 고음을 듯고 직물을 만히 주고 <영조판>
 ㄱ. 반적 동탁이 그 고으를 듯고 술위 빅 승과 물 이십 필과 <오류 17b>
- (10) ㄱ. 趙曰 第無患 遂涕泣登輿而去 <열17b>
 ㄴ. 趙氏 닐오디 分別 업스니이다 하고 울오 덩 타 니거늘 <성종판>
 ㄷ. 도시 닐오디 分別 업스니라 하고 울오 덩 타 니거늘 <선조판>

꼬리 밑에 거는 좁다란 나무 막대기.”이다.

- 12) 현대국어 ‘단추’의 직접적 소급형인 ‘단쵸’는 『역어유해』에서 최초로 문증된다. ‘剪紐의 단쵸 도적하느 놈’ <譯語上66a>.
- 13)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서는 ‘달마기’(<‘들마기’)>를 ‘단추’의 사투리로 풀이하고 있다.
- 14) ‘견막이’의 내적 구성은 ‘견(肩)+막이’로 볼 수도 있고, ‘결+막이’로 파악할 수도 있다. ‘결+막이’로 볼 때, ‘결막이’가 ‘견막이’된 것은 평파열음화와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 ㄹ. 영결호노라 호고 술의를 타고 가더니 <영조판>
 ㄹ. 도시 곶오되 근심 말라 호고 눈물을 썩리고 술위에 올라가더니
 <오류35a>

(9ㄴ), (10ㄴ)은 ‘덩’이 쓰인 예로 한문 원문의 ‘輶’과 ‘輿’에 대응하고 있다. 후대본에서는 ‘수레’의 소급형인 ‘술의, 술위’로 언해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덩’과 ‘술위’를 同義語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덩’은 수레의 한 종류인 ‘가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11) ㄱ. 여러 보비와 奴婢와 술위와 보비로 꾸문 덩과로 즐겨 布施호야 (諸珍 奴婢車乘 寶飾輦輿 歡喜布施) <釋詳13:19a>
 ㄱ. ‘ 여러 보비와 奴婢와 술위와 보비로 꾸문 輦輿로 [술위며 업스니 輿] 라] 歡喜호야 布施호야 <法華1:77a>
 ㄴ. ㄹ리며 술위며 보비엿 더을 어드며 (馬車乘 珍寶輦輿 及乘天宮)
 <釋詳19:6a>

(11)은 『석보상절』에 ‘덩’이 쓰인 예로 모두 저경의 ‘輦’에 대응하고 있다. (11ㄱ’)에서는 ‘輦輿’를 협주에서 “수레바퀴가 없는 것이 여(輿)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輦輿’는 바퀴가 없는 여(輿)이므로 ‘가마’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덩/덩’이 중세국어 문헌에서 문증되는 것은 (9)~(11)의 예가 전부인데 끝내 소멸하지 않은 채,¹⁵⁾ 현대국어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덩’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사전에서는 현대소설(『흔불』)의 일부 문장을 인용하면서 “공주나 웅주가 타던 가마”로 풀이하고 있다.

15) 근대 및 개화기 시기에 ‘덩’이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살아실 제 閨門에 기피 잇고 나가면 덩 타고 그 늑출 ㄹ리오거든’ <家禮5:20b>, ‘부인 조시 쇼져를 장속호여 흔 덩을 타 도성으로 드리오니’ <현몽쌍룡기2:46a>.

4) ‘바오달’

(12) ㄱ. 徽宗至金營 <충18a>

ㄴ. 徽宗이 金人 營에 니거시닐 [營은 바오달이라] <성종관>

ㄷ. 徽宗이 금營에 니거시닐 <선조관>

ㄹ. 徽宗 황데 오랑캐게 잡히여 가니 <영조관>

ㅁ. 徽宗 황데 금인 [오랑캐라]의게 잡히여 가니 <요류>

(12ㄴ)은 ‘바오달’이 쓰인 예이다. 협주에서 ‘營’을 ‘바오달’로 풀이하고 있다. 한자어 ‘營’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바오달’은 “진영(鎭營), 군영(軍營)”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바오달’은 (12ㄴ) 외에 『훈몽자회』(1527)에서 한 예가 더 보인다.

(13) 營 바오달 영 俗稱 下營 바오달 티다 又 營盤 바오달 티 <訓蒙中4b>

(13)은 『훈몽자회』에 ‘바오달’이 쓰인 예로 ‘바오달 티다(下營)’, ‘바오달 티(營盤)’와 같은 용례도 함께 들고 있다.¹⁶⁾ 이기문(1991: 129-130)에서는 ‘바오달’을 중세 몽골어의 차용어로 추정하였다. 몽골 문어에 ‘barudal’이 있는데 元朝祕史에 동사 어간이 ‘ba’u-(下)’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중세 몽골어의 형태는 ‘*ba’udal’으로 볼 수 있고, ‘바오달’은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16) 『병학지남』, 『역어유해보』 등의 문헌을 보면 ‘下營’은 ‘진(을) 티-’, ‘영(을) 티-’에, ‘營盤’는 ‘진터’에 대응하고 있다. ‘터의 지휘를 들어 ㄱ만ㄱ만 진을 티라 (聽他調度 密密下營)’ <병학지남10b>, ‘또흔 영을 틈 후의 건너되 (亦下營後渡)’ <병학지남15a>, ‘排陣 진치다 下營 操兵 習陣하다’ <譯語補14b>, ‘營盤 진터’ <譯語補14b>, <西部方言11a>.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바오달’의 한자 표기인 ‘波吾達/坡吾達’이 보인다.¹⁷⁾

- (14) ㄱ. 파산군 조득림과 진무 민운을 보내어 순행(巡幸)할 때 지나갈 파오달(波吾達)을 심정(審定)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28일 병신 5번째 기사>¹⁸⁾
- ㄴ. 대가가 김화현 발산 사장에 이르렀는데 좌우상이 유적산에서 몰이하다 진을 파하고 평강현 적산 파오달(波吾達)로 거동하였다. <성종실록 233권, 성종 20년 10월 7일 신묘 4번째 기사>¹⁹⁾
- ㄷ. 만일 계속 3일을 강무한다면 군사들이 미처 진을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종조 때 계속해서 3일을 강무한 것은 바오달(坡吾達)을 먼저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7월 17일 경오 10번째 기사>²⁰⁾

(14)는 『조선왕조실록』에 ‘波吾達/坡吾達’이 쓰인 예이다.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는 ‘波吾達/坡吾達’에 대해 몽골의 역원(驛院) 제도에서 여행자를 접견하기 위하여 마련한 원(院)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 때 몽고의 지배하에 역원이 설치되었던 지명에 이러한 칭호가 붙게 되었다고 하였다.²¹⁾ 이에 따르면 ‘波吾達/坡吾達’은 일종의 여관과 같은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록의 기사를 보면 여관으로만 보기에는

17)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波吾達’은 55회, ‘坡吾達’은 2회 총 57회가 보인다. 중세 국어 문헌을 통틀어 ‘바오달’이 2회만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波吾達/坡吾達’이 대부분 <성종실록>에 집중되어서 나온다.

18) “遣巴山君 趙得琳 鎮撫閔惲 審定巡幸所過波吾達”

19) “大駕至金化縣 鉢山射場 左右廂驅幽寂山 罷陣 幸平康縣 積山波吾達”

20) “若連三日講武 則軍士等未及結陣矣 祖宗朝時 連三日講武者 以其先定坡吾達耳”

21)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907024_002 <성종실록 218권, 성종 19년 7월 24일 을유 2번째 기사>

부족함이 있고, “왕이 산릉으로 거둥하거나 강무(講武)를 행할 때 이용한 곳” 정도로 쓰이고 있다.

한편 ‘波吾達/坡吾達’은 (14ㄷ)의 중종실록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이는 ‘바오달’이 『훈몽자회』를 끝으로 더 이상 문증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뜰에질’

(15) ㄱ. 廬于外 早入灑掃 <효7a>

- ㄴ. 門 밧긔 가개 짓고 이셔 아츰미어든 드러 뜰에질혀거늘 <성종판>
- ㄷ. 문 밧긔 가개 짓고 이셔 아츰미어든 드러 뜰에질혀거늘 <선조판>
- ㄹ. 문 밧긔 막을 의지하고 이셔 일즉이 들어와 뜰에질흔대 <영조판>
- ㅁ. 집 밧긔 막을 의지하고 이셔 일즉이 드러와 뜰에질흔대 <오륜11b>

(15ㄴ)의 ‘뜰에질’은 한문 원문의 ‘灑掃’에 대응하는 것으로 현대국어 ‘쓰레질’의 소급형이다. ‘뜰에질’은 “掃”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뜰-’에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게’가 통합(‘뜰에’(ㄹ) 뒤 ㄱ약화))하고, 거기에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이 통합한 것이다.

한편 중세에는 ‘뜰에질’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형으로 ‘쓰서리, 쓰서리, 쓰서름’ 등이 있었다.

(16) ㄱ. 지비 가난하야 이바들 거시 업스니 손 안젧는 位에 오직 쓰서리쓴
혀더라 (家貧無供給 客位但箕箒) <杜詩初8:55a>

- ㄴ. 乘興하야 올마 쓰서리 아니하야 뜰들 조차 프른 이식 안조라 (興移無洒掃 隨意坐蒼苔) <杜詩初15:9a>
- ㄷ. 물읏 얼운 위하야 쓰서리흔 레되 모로매 뷔를 키 우희 연저 (凡爲長者糞之禮 必加帚於箕上하야) <鰾小3:27a>
- ㄷ'. 물읏 얼운 위하야 더러운 것 쓰는 레도는 반드시 뷔를 키 우희

연주며 <小學2:59a>

ㄹ. 집 다스릴 일 하며 오래 뜯 쓰서르를 게을이 호미오 <여씨화산9b>

(16)은 ‘쓰서리, 쓰서리, 쓰서름’ 등이 쓰인 예로 한문 원문의 ‘箕箒’, ‘洒掃’, ‘糞’ 등에 대응하고 있다. 모두 “쓰레질”로 해석된다. 먼저 (16ㄱ, ㄴ)의 ‘쓰서리’는 다른 책에서는 보이지 않고 『두시언해』에서만 5회 보이는 어형으로 동사 ‘뜯-’와 ‘설-’²²⁾가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쓰설-’(‘ㅅ’

22) ‘설-’는 “치우다, 정리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1) ㄱ. 益利 가보니 … 가스를 못 다 서러 있는 드시 헛엿더니 (椀櫟收拾 猶未得了) <月釋23:74b>

ㄴ. 우리 잘 되 서러 보아지라 (我整理睡處) <籲老上25a>

ㄴ’. 내 잘 收拾하고 자자 (我好收拾睡覺) <老乞重上22b>

ㄷ. 이의 이러면 네 드레와 줄 서러 내여 오교려 (既這般時 你收拾洒子井繩出來) <籲老上31b>

ㄷ’. 이의 이러면 네 드레와 줄을 收拾하여 내여 오라 (既這般 你收拾柳罐井繩出來) <老乞重上28b>

(1)은 중세국어 문헌에서 ‘설-’가 쓰인 예이다. 한문(백화문) 원문의 ‘收拾, 整理’ 등에 대응하고 있다. (1ㄱ)은 “익리가 가보니 (거기에 수저가 뒤섞여 있고 향내가 뒤범벅이 되어 있고) 그릇을 못 다 정리하여 있는 듯이 하엿더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ㄴ, ㄷ)도 “치우다, 정리하다” 정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 책(성종판)에도 ‘설-’가 한 예 보이는데, (1)과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였다.

(2) ㄱ. 及暮賊至 見諸屍滿室 遂盡掠其家財而去 <열27b>

ㄴ. 나조히 도즈기 와 生計를 다 서러 가니라 <성종판>

ㄷ. 나조히 도즈기 와 보니 주저미 집 안해 마득헛엇썌 세간만 다 서러 가니라 <선조판>

ㄹ. 저녁의 도적이 도라와 … 그 집의 있는 직물만 노략하여 가니라 <영조판>

ㅁ. 저녁에 도적이 도라와 … 그 집 직물을 노략하여 가니라 (오류 3:56ab)

(2ㄴ)은 ‘설-’가 쓰인 예이다. 한문 원문의 ‘掠’을 연해한 것으로 후대본에서는 ‘노략-’로 연해되었다. 이를 ‘설-’가 “노략(질)하다”의 의미도 가졌던 것으로 보기도

앞에서 ‘ㄹ’ 탈락, 유성음 사이에서 ‘ㄱ>△’)에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통합한 것이다.²³⁾ 다음으로 (16ㄷ)의 ‘쓰서리’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인 ‘쓰설-’에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통합한 것이고 (16ㄹ)의 ‘쓰서름’은 ‘쓰설-’에 명사 파생접미사 ‘-음’이 통합한 것이다.

근대국어 문헌에는 ‘쓰서리’와 ‘빨에질’의 후대형인 ‘쓰레질/쓰레딜’만 보인다.²⁴⁾ 이후 ‘쓰레질’이 개화기를 거쳐 현대국어의 ‘쓰레질’로 이어졌다.

6) ‘음담’

(17) ㄱ. 非父不生 非食不長 <충2a>

ㄴ. 아버지 아니면 나디 못하리며 음담곳 아니면 즈라디 못하리며 <성중판>

ㄷ. 아버지 아니면 나디 못하리며 음식곳 아니면 즈라디 못하리며 <선조판>

ㄹ. 아버지 아니면 나지 못하고 밥이 아니면 당성치 못하고 <영조판>

ㅁ. 아버지 아니면 나디 못하고 밥이 아니면 즈라디 못하고 <오륜3b>

(17ㄴ)은 ‘음담’이 쓰인 예로 한문 원문의 ‘食’을 언해한 것이다. 후대본에서는 ‘음식’과 ‘밥’으로 교체되었다. ‘음담’은 한국 한자어인 ‘飮啖’을

다는 해당 문맥에서 확장된 의미로 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즉 “치우다, 정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의 주어가 이 문장에서 ‘도죽’이므로 문맥상 “노락질하다”로 해석된 것이다.

23) ‘쓰설-’는 『두시언해』 외에 『석보상절』에서만 한 예를 볼 수가 있다. ‘五色 누믈채 녀허 조흔 짜홀 쓰설오 노폰 座 밍글오 (以五色綵 作囊盛之 掃灑淨處 敷設高座)’ <釋詳9:21a>. ‘쓰설-’는 저경의 ‘掃灑’에 대응하고 있다.

24) ‘쓰서리’는 17세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만 한 예가 보인다. 그리고 ‘쓰레딜’은 『오륜행실도』(1797)의 예인데, ‘쓰레질’의 과도교정형이다.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음식물을 마시고 먹는다는 의미이다.²⁵⁾ 현대국어의 ‘식음(食飮)’과 같은 의미이다.

‘음담’은 (17ㄴ) 외에 『석보상절』, 『월인석보』와 18세기 문헌인 『속명 의록언해』 등에서 보이고, 한자어 ‘飮啖’은 『내훈』, 『원각경언해』와 19세기 문헌인 『삼성훈경』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볼 수 있다.

(18) ㄱ. 長常 病_{ᄃᆞ}야 시드러 음담 못_{ᄃᆞ}고 (厄長病羸 瘦不能飮食) <釋詳 9:29b>

ㄴ. 帳 안해 누브며 읍_{ᄃᆞ}장 음담_{ᄃᆞ}다가 (臥則幃帳 食則恣口) <月釋 22:31b>

ㄷ. 죽궁이 음담을 전혀 물니시고 눈물노 날을 디내오셔 <續明2:23a>

(19) ㄱ. 淫과 盜와 마숨과 머굼과 (淫盜飮啖) <圓覺下1-1:28a>

ㄴ. 飮啖을 소리 나게 말며 (母啖食_{ᄃᆞ}며) <內訓1:3a>

ㄷ. 남의 음식 먹는 거슬 보되 (見人飮啖) <三聖21b>

(20) ㄱ. 永膺常食於予側 所重在飮啖耳 (영응대군이 항상 내 곁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는 그 소중함이 음식먹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세조 실록 1권, 총서 27번째 기사>

ㄴ. 今又以脹痞之候 飮啖不善化 (지금 또 배가 더부룩한 증상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어) <순종실록부록 17권, 순종 19년 1월 13일 陽曆 1번째 기사>

(18)~(20)은 ‘음담/飮啖’이 쓰인 예로 모두 “(음식을) 먹고 마심”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19ㄱ, ㄷ)에서 ‘飮啖’이 ‘마숨(‘마시+--음’)과 머굼(‘먹+--음’), ‘음식 먹는 것’으로 언해된 것이 참고된다. ‘음담/飮啖’이 비록 문증되는 예는 많지 않지만,²⁶⁾ 문증되는 범위는 15세기 중반부터

25) 온라인 서비스 중인 한국한자어사전을 통해 ‘飮啖’이 한국 한자어임을 확인하였다.

20세기 초까지로 매우 넓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음담(飮啖)’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적은 예이지만 1920년대까지도 쓰이던 것인데 그 이후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2. 용언류

1) ‘누웁흐-’

(21) ㄱ. 婦待守者少懈 嚙指出血 <열21b>

ㄴ. 덕흔 사랴미 누웁흐 스시 어다 솟가락 너호러 피 내야 <성종판>

ㄷ. 덕근 사랴미 누으룩흐 스이에 손까락 너호러 피 내야 <선조판>

ㄹ. 덩뵈 손까락을 깨물어 피를 내여 <영조판>

ㅁ. 덩뵈 덕흔 사랴미 업슬 썰 타서 손가락을 깨므려 피를 내여 <오륜43b>

(21ㄴ)은 ‘누웁흐-’가 쓰인 예이다. 한문 원문의 ‘懈’를 언해한 것으로 “느슨하다, 느즈러지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21ㄴ)은 “(정부를) 지키는 사람이 느슨한(느즈러진) 사이를 얻어”로 해석할 수 있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懈’는 ‘게으르-’로 언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곳에서는 ‘누웁흐-’로,²⁷⁾ 선조판에서는 ‘누으룩흐-’로 언해되었다. ‘누웁흐-’뿐만 아니라 ‘누으룩흐-’도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형이다.

26) 역사 자료 말뭉치에 ‘음담’은 총 9회만 보이고, ‘飮啖’은 한글(언해) 문헌에서는 6회,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는 20회 검색이 된다.

27) 이 책(성종판)의 다른 부분에서는 ‘懈’가 ‘게으르-’로 언해되었다. ‘고디 드러 막줄 오미 저기 게으르거늘’(防之少懈) <성종판 열11a>. 이 부분은 “(부모가 改嫁를 계속 권하므로 영녀가 이를 거짓으로 허락하니) 곧이 들어 막는 것이(강요가) 조금 느슨하거늘” 정도로 해석된다. ‘게으르-’가 “게으르다, 나태하다”의 의미가 아닌 ‘누웁흐-’와 같은 “느슨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누웁-’과 관련이 있는 어형으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서 보이는 ‘누흫-’가 있다.

- (22) ㄱ. 王이 아드리 업스실씩 손소 神靈을 섬기샤 열두 히를 누흫디 아니
 ㅎ샤 子息을 求ㅎ더시니 (王了無子 王自供養 奉事山神樹神 一切
 神祇 經十二年 不懈不息 求索有子) <釋詳11:18a>
 ㄱ'. 王이 아드리 업스실씩 손소 神靈을 섬기샤 열두 히를 누흫디 아
 니ㅎ샤 子息을 求ㅎ더시니 <月釋21:213b>

(22)는 ‘누흫-’가 쓰인 예이다.²⁸⁾ 저경의 ‘懈’에 대응하고 있다. (22ㄱ)을 해석해 보면 “왕이 아들이 없으시므로 손수 神靈을 섬기시어 열두 해를 느슨히 하지 아니하시어 자식을 구하시더니” 정도로 볼 수 있다. 이곳의 ‘누흫-’는 타동사로 (21ㄴ)의 ‘누웁-’가 형용사인 것과 차이가 있다.

다음은 『백련초해』(1576)에서 보이는 ‘누흐럽-’를 살펴보겠다.

- (23) 비 바랏 피해 개니 도라오는 구루미 누흐럽고 (雨晴海嶠歸雲嫩) <백
 련11b>

(23)은 ‘누흐럽-’가 쓰인 예이다. 한문 원문의 ‘嫩’을 언해한 것이다. (23)은 비가 개이자 산에 끼었던 구름이 흩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고어사전에서는 “옳다”로 풀이하고 있다. “(날이 개니) 돌아오

28) 이 글의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께서 ‘ㅎ-’는 자음어미 앞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이 문중되지 않는 한 ‘누흫디’의 어간이 ‘누흫ㅎ-’인지 ‘누흫-’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다. 다만 (22) 외에는 다른 예가 문중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어간을 ‘누흫-’로 판단하였다.

는 구름이 엷어지고(홀어지고)” 정도로 해석된다. ‘엷-’의 의미가 “밀도가 뽁뽁하지 않다”인 것을 고려해 보면 ‘누웁-’, ‘누흙-’와는 의미상 “뽁뽁하지 않다, 타이트(tight)하지 않다”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 형태적으로는 동사 ‘누흙-(←‘누흙-’에 형용사 파생접미사 ‘-엷-’이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²⁹⁾

2) ‘몹-’

(24) ㄱ. 讀詩 至哀哀父母 生我劬勞 <효15b>

- ㄴ. 毛詩 님다가 몹븐 父母 | 나를 잇비 나흐시니라 <성종판>
- ㄷ. 모시 님다가 슬픈 부모 나를 슈고로이 나흐시니라 <선조판>
- ㄹ. 모시를 님을식 익이 부피여 날을 나키을 슈고로이 흐샷다 <영조판>
- ㅁ. 시를 님을식 익이 부모여 날 나키를 슈고로이 흐샷다 <오륜21b>
- ㅂ. 모시를 님글 제 蓼莪篇의 설을서 父母 | 여 날 나호를 슈고로이 흐샷다 <籲小9:27a>
- ㅅ. 모시 님글 제 슬프며 슬프다 父母 | 날 나흐심을 슈고로이 흐샷다 <小學6:24b>

(24ㄴ)의 ‘몹-’는 한문 원문의 ‘哀哀’를 언해한 것으로 일반적인 슬픈 감정보다 더 슬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24ㄷ, ㅅ)의 『번역소학』, 『소학언해』에서 ‘설우-’, ‘슬프며 슬프-’로 언해된 것이 참고된다. (24ㄷ)에서는 ‘哀哀’를 번역하기 위해 “원통하고 슬프다”는 의미를 지닌 현대국어 ‘서럽-’의 소급형인 ‘설우-(←‘섣-’)’를 사용하였다.

29) 심사를 맡아주신 다른 심사위원께서 ‘누흙-’, ‘누흐렵-’의 ‘흙-’과 ‘흐렵-’에 대해서 현대어 ‘헐겁-’이나 그 방언형 ‘홀겁-’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몹-’는 이 책 외에 『월인석보』에서도 그 쓰임을 볼 수가 있다.

- (25) ㄱ. 나는 호오사 艱難코 쏜 누니 머로이다 王이 몹니 너기샤 니르샤되
(我獨貧窮加復眼 王見哀之謂) <月釋11:10a>
 ㄴ. 산 거시 몹니 너기며 사르미 슬허 호느니 (生物哀之 人類悲之)
<月釋12:17a>
 ㄷ. 도톨 동여 두고 매로 티니 몹 소리 굿디 아니호엿거든 (縛猪棒打
哀聲未絕) <月釋23:73a>
 ㄹ. 도톨 동여 두고 매로 티며 글는 가마에 오로 녀허 데티니 몹 소리
굿디 아니호엿거든 (縛猪棒打 熱湯洗身 哀聲未絕) <月釋23:75a>

(25)는 『월인석보』에 ‘몹-’가 쓰인 예이다. 총 4회 보이는데 모두 저본의 ‘哀’에 대응하고 있다. (24ㄴ)과 (25)가 문헌에서 ‘몹-’가 문증되는 모든 예로 ‘몹-’는 15세기 문헌에서만 보이고 16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³⁰⁾

어떤 특정한 어형이나 문법 현상이 다른 책에는 보이지 않고, 15세기 중엽의 문헌과 이 책(성종판)에서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고영근(1991), 홍윤표(1998)를 비롯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 책의 간행 시기와 언해문이 작성된 시기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1490년(성종대)에 간행되었지만 언해문은 15세기 중엽(세종대 혹은 세조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훈(2018)에서는 이 책 안에서도 언해문의 원고 작성 시기가 「효자도」, 「충

30) ‘몹-’의 ‘몹’이 소실된 형태인 ‘몹아, 몹와’ 등도 15세기 문헌인 『석보상절』과 『법화경언해』에서 각각 한 예씩 문증된다. ‘車匪이 몹와 혼뵈 울오 도라오니라’ <釋詳3:32a>, ‘ᄃ장 몹와 너비 濟度 호시리 아니시면’ (自非大哀曠濟시면) <法華序16a>.

신도, 「열녀도」의 순서로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월인석보』와 이 책의 「효자도」에서만 보이는 ‘몹-’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믹야흐-’

(26) ㄱ. 孜悲歎曰 鹿獨不念我乎 <효18a>

ㄴ. 許孜 | 슬허 ㄱ로되 사슴몬 엇데 믹야커노 <성종판>

ㄷ. 허지 슬허 릴오되 사슴몬 엇데 믹야커노 <선조판>

ㄹ. 지 탄식하야 곶오되 사슴이 날을 넘너치 아니하노^ㄷ다 <영조판>

ㅁ. 지 슬피 탄식하야 곶오되 사슴은 홀로 날을 넘너티 아니하^ㄷ는다
<오류27b>

(27) ㄱ. 姑性嚴 待之寡恩 <열25a>

ㄴ. 식어미 性이 모디러 믹야히 對接하거든 <성종판>

ㄷ. 식어미 성이 모디러 믹야히 ㄷ접하거든 <선조판>

ㄹ. 식어미 성이 엄하야 처를 박디호되 <영조판>

ㅁ. 식어미 성정이 엄하야 동시를 박디호되 <오류52a>

(26ㄴ), (27ㄴ)은 ‘믹야흐-’가 쓰인 예로 한문 원문의 ‘不念’과 ‘寡恩’에 대응하고 있다.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매정하다, 야박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후대본인 (27ㄹ, ㅁ)에서는 한문 원문의 ‘待之寡恩’을 ‘박디하-(薄待)’로 언해한 것이 참고된다. (26ㄴ)은 부모가 죽고 슬픔에 잠겼던 마음을 추스린 후 혼자서 부모의 묘를 지키면서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날 사슴 한 마리가 와서 나무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슬퍼하며 말하는 것으로 “사슴은 어찌 (이렇게) 매정한가?” 정도로 해석되고, (27ㄴ)은 “시어머니의 성품이 모질어 야박하게 대하였는데” 정도로 해석된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믹야흐-’는 (26), (27)을 제외하고 총 5회 문증된다.

- (28) ㄱ. 스물흐나차힌 늑물 向흐야 다 委曲히 흐시고 믹야히 아니흐시며
 <月釋2:56b>
 ㄴ. 禮義 허므리 이시면 남지니 믹야히 흐리니 (禮義有愆 흐면 夫則薄
 之 흐리니) <內訓2上:11b>
 ㄷ. 공변되이 아니 녀기면 자내 믹야흐니 <순천105:3>
 ㄹ. 내 사라시면 아니 쉬 가랴 주그면 다시 보라 믹야코 노호오미 그지
 업스니 <순천146:11>
 ㅁ. 스실 하 물흐다니 저도 ○○○ 그 나를 믹야히 녀길 거시오 <순천
 189:5>

(28)은 중세국어의 다른 문헌에서 ‘믹야흐-’가 쓰인 예이다. (28ㄱ)은 “스물한째는 남을 향해 위곡히(자상히) 하시고 매정히 아니하시며”, (28 ㄴ)은 “(행동이 신의 뜻에 어긋나면 하늘이 벌하시고) 예의에 허물이 있으면 남편이 매정하게 대하니” 정도로 해석된다. (28ㄷ~ㅁ)의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예도 모두 “매정하다, 야속하다”로 해석된다.³¹⁾

‘믹야흐-’는 근대 및 개화기국어 시기에도 보인다. 『첩해신어』(1676)와 낙선재본 한글 소설에서 볼 수가 있다.

- (29) ㄱ. 친히 보와 살을 말이 만컨마는 요스이 일절 예는 오디 아니흐시니
 ㅁ장 믹야흐여 노흠스와 흐읍닌 <捷解初2:12b>
 ㄱ’. 親히 보와 술을 일이 만컨마는 요스이는 일절 예는 오지 아니흐
 시기에 ㅁ장 섭섭도 흐고 노호와 흐읍닌 <改捷2:18a>

- (30) ㄱ. 무슴 연괴 이시리오 녀으를 써난 지 오리니 즈식은 믹야흐여 어피

31)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예는 조항범(1998)의 현대역을 참고하였다.

정만 못하디 어미는 그리오물 니끼지 못하여 <윤하정삼문취록 46:14a>

ㄴ. 내 … 상시 통열하나 죽은 스름은 조금도 알오미 업서 미야하를 한하니 <완월회맹연165:19b>

ㄷ. 중뵈 너모 노부를 좇지 아니니 미야하미 심하고 화풍을 오리 보지 못하니 심중의 질병이 닐 듯하디니 <벽허담관계언록6:34a>

(29), (30)은 근대 및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 ‘미야하-’가 쓰인 예로 “매정하다, 야속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29)를 보면 (29ㄱ)의 ‘미야하여’가 개수본인 (29ㄱ’)에서 ‘섭섭도 하고’로 교체되었다. 이는 해당 술어의 주어를 달리 파악한 것으로 (29ㄱ)은 “요사이 일절 여기는 오지 않으시니 매우 매정하여 (내가) 노여워하고 있습니다.”로, (29ㄱ’)은 “요사이는 일절 여기는 오지 않으시기에 (내가) 매우 섭섭도 하고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볼 수 있다. (30)은 낙선재본 한글 소설에 쓰인 예이다. (30ㄱ)은 “여아를 떠난 지 오래니 자식은 매정하여 어미의 정만 못하니”, (30ㄴ)은 “나는 … 늘 통열(痛烈)하나 죽은 사람은 조금도 아는 것이 없어서 매정함을 한탄하니” 정도로 해석된다. (30)을 통해 ‘미야하-’가 개화기 시기까지 쓰였음을 알 수 있다.³²⁾

4) ‘흐즈못 하-’

(31) ㄱ. 一日假寐 其父來詠詩云 <효32b>

ㄴ. 흘른 흐즈못하엿거늘 아비 와 그를 이푸디 <성종판>

ㄷ. 흘른 흐즈못하엿거늘 아비 와 그를 이푸디 <선조판>

32) ‘미야하-’는 근대국어 문헌에서 (29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언간에서도 쓰인 예를 찾을 수 없었는데, 낙선재본 한글 소설에서는 17회 찾을 수 있었다.

- ㄹ. 홀넝 꿈을 꾸니 그 아비와 글을 읊혀 고평되 <영조판>
- ㅁ. 홀넝 꿈을 꾸니 그 아비 와서 글을 읊혀 고평되 <오륜61a>

(31ㄴ)의 ‘호즈못호-’은 한문 원문의 ‘假寐’를 언해한 것으로 “수잠(선잠, 겹잠) 자다” 정도의 의미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 책에서만 보이는 어형이다.

한편 ‘假寐’는 『이륜행실도』의 異本들에서는 ‘수호잠, 수후잠’으로 언해되었다.

- (32) ㄱ. 仍假寢閣前 承候安否 <형15a>
- ㄴ. 방 알피서 수호잠 자며 안부를 아더라 <중종판(옥산서원본1518)>
 - ㄷ. 방 알피서 수후잠 자며 안부를 묻더라 <선조판(심악문고본1579)>
 - ㄹ. 방 알피서 수후잠 자며 안부를 못더라 <영조판(규장각본1727)>
 - ㅁ. 창 밧긔서 자다가 술 썬기를 기드려 문안호고 <오륜27b>

(32ㄴ~ㄹ)은 한문 원문의 ‘假寢’이 『이륜행실도』 異本들에서 현대국어 ‘수잠’의 소급형인 ‘수호잠, 수후잠’으로 언해된 예이다. ‘수호잠, 수후잠’도 이 책을 제외한 다른 문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³³⁾ (31ㄴ)의 ‘호즈못호-’과 (32ㄴ)의 ‘수호잠’에서 공통되는 요소는 ‘호잠’인데, ‘호잠’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³⁴⁾

33)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청구영언』의 고시조에서 ‘수후잠’과 ‘수우잠’이 쓰인 예를 각각 한 예씩 들었다. ‘萬古興亡이 수후잠에 쏘이여늘 어디서 망녕의 거슨 노지 말나 호나니’ <청구영언-원14>, ‘英雄은 누고 누고 萬古興亡이 수우잠의 꿈이로다’ <교시조 2807-11>.

34) 『교학 고어사전』(1997: 884)에서는 순우분이 잠자는 동안 꿈 속에서 잠시 영화를 누렸다는 고사(南柯一夢)에서 ‘수후잠’이라는 말이 생긴 것으로 ‘수후잠’의 ‘수후’는 순우분(淳于棼)의 ‘순우’의 誤記라고 하였다. ‘수호’의 어원을 알기 어렵기에 추정해 본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성종판)에 쓰인 체언과 용언들 중에서 희귀어들을 대상으로 異本들 간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살피면서 의미와 형태 분석, 예문 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본 체언으로는 ‘가개(幕)’, ‘軍마기(防禦)’, ‘뎡(興)’, ‘바오달(營)’, ‘빨에질(灑掃)’, ‘음담(食)’ 등이고, 용언으로는 ‘누웁흐-(懈)’, ‘몹-(哀哀)’, ‘미야흐-(不念)’, ‘흐즈못흐-(假寐)’ 등이다. 이들 중 명사 ‘軍마기(防禦)’, ‘빨에질(灑掃)’, 형용사 ‘누웁흐-(懈)’, 동사 ‘흐즈못흐-(假寐)’ 등은 다른 책에는 보이지 않고 이 책에서만 보이는 것들이다.

『삼강행실도』 언해본 한 권에 대한 이러한 작업은 이 책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5세기 중세국어어를 더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남광우,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1997.
- 문세영, 『조선어사전』, 조선어사전간행회. 1938.
- 박재연·이현희,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4 - 옛말과 이두』, 어문각. 1992.
- 고영근, 「『삼강행실도』의 번역 연대, 『김영배 선생 회갑기념 논총』, 경운출판사, 1991, pp.77-84.
- 김명남, 「『삼강행실도』 언해본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유범, 「중세국어 문법 교육과 언해본 『삼강행실도』, 『새얼어문논집』 제18집, 세얼어문학회, 2006, pp.185-212.
- _____,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1): 「효자도」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제37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pp.465-489.
- _____,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2): 「충신도」를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제30집, 우리어문학회, 2008, pp.265-297.
- _____,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3): 「열녀도」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연구』 제66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pp.317-351.
-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
- 송철의·이현희·장윤희·황문환, 『역주 오륜행실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윤미옥, 「『三綱行實圖』의 유교적 가치 연구, 성균관대학교 儒學科 박사학위논문, 2016.
- 이규범, 「국어교육을 위한 행실도류의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상훈, 「『三綱行實圖』 언해본의 서지학적·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영희, 「행실도류 언해의 분석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문, 2011.

조항범,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태학사, 1998.

최정란, 「조선시대 ‘행실도’의 목판화 양식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박사학위논문, 2009.

홍윤표, 「『三綱行實圖』의 書誌 및 國語史的 意義」, 『震檀學報』 제85집, 진단학회, 1998, pp.141-162.

志部昭平, 『諺解三綱行實圖の文獻學的研究』, 汲古書院,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Samganghaengsildo*』

- Focusing on substantives and predicates -

Lee, Sang-hoon

Among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Samganghaengsildo*,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form analysis, illustrative sentences, and so forth against words that could only be seen in this book or those that, despite being found in different literature of the Middle Korean period, still lacked examples with related vocabulary.

This paper reviewed around substantives and predicates, looking into ‘가개 (幕, kage)’, ‘軍마기 (防禦, koonmagi)’, ‘덩 (興, tung)’, ‘바오달 (營, paodal)’, ‘쓸에질 (灑掃, pseulejil)’, ‘음담 (食, eumdam)’ for substantives, and ‘누음헝- (懈, nueulkhe-)’, ‘몐- (哀哀, melb-)’, ‘믹야헝- (不念, meiyage-)’, ‘호즈못헝- (假寐, heujemeshe-)’, and so on for predicates.

While studies on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Samganghaengsildo* have achieved numerous results in various fields, studies that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this book’s vocabulary through diachronic changes and the differences among alternative versions have not been reported yet. Showing transformation aspects of language according to a gap of time, the task attempted in this paper will firstly be useful for revealing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used in this book.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Korean’s lexical history.

Key Words : *Samganghaengsildo*,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Samganghaengsildo*, vocabulary of *Samganghaengsildo*, 가개 (kage), 軍마기 (koonmagi), 바오달 (paodal)

이상훈

소속 :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강의전담객원교수

전자우편 : ytwrk12@uos.ac.kr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